기고

김 덕 형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조선의 청백리 정신에서 공직자가 배울 점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선 청백리의 대표적인 표상인 아곡 박수량 선생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98호로 등록된 문화유산 이기도 한 이 비석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있지 않아 백비라고 불린다.

비석에 어떠한 글씨조차 새겨져 있지 않아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차 구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왜 비석에 아무런 글 새김이 없을까 의아한 분이 많을 것이다.

필자 또한 이를 궁금히 여겨 관련 문헌을 찾아보았더니 아곡 박수량 선생은 황희, 맹사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청백리로 손꼽히는데 무려 39년 동안 관직에 봉직하면서 지금의 장관격인 판서까지 오른 인물 이였지만 관직이 높았음에도 재물에는 욕심이 없어 사후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다보니 조정에서 장례비용을 마련해주어 경우 장례를 치를수 있을 정도로 청렴한 생활을 하였던 인물이였다.

이에 당시 명종 임금은 박수량 선생의 묘비에 공적을 새기는 것은 청백리 정신에 누가 될수 있다며 비문을 못쓰게 하고 맑은 덕을 기리기 위해 백비를 하사하게 되면서부터 그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고로 청백리란 조선시대에 선비사상과 더불어 생겨난 청렴한 공직자를 일컫는 말인데 당시 청백리들은 청렴, 근검을 매우 중요시했다고 한다.

필자 또한 이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지나온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굳이 과거를 논하지 않더라도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에게 청렴정신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고 모든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덕목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청렴이 아닐까 한다.

청렴(淸廉)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고 되어 있고 청렴을 실천하고자 외치는 기업과 관공서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경찰이 청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은 국가의 녹(祿)을 받는 국민과 밀접한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제복입은 시민이기 때문일터이다.

청렴한 조직문화는 존경과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곡 박수량 선생의 정신을 기려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으로 또 다른 백비를 만들기 위한 청렴을 다짐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힘찬 발걸음에 격려를 부탁 드린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여성 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 고장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안전, 그리고 공무원 청렴

'코로나19'지역사회 전파가 늘어나면서 직접 피부에 와 닿아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모임이나 행사 등 자제, 움직이는 동선 최소화,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출입을 금하는 등 개인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코로나19'는 질병이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도 걸릴 수 있으므로 감염자에 대해 죄인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것은 개인위생 등 책임을 소홀히 하고 증상이 있는데도 숨기고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방역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들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화재, 교통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가 그렇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개인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책임의식이 타인의 안전도 보장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는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는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가?" 등 안전의식을 다잡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한편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코로나19'와 연관 지어 청렴을 말한다면"한번인데 어때?", "누가 알겠어?"라는 생각으로 부패가 행해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코로나19'처럼 무섭게 전파될 것이고 그것은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자유와 이웃사랑의 중요도를 생각하여 권리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몸은 멀어지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서로에게 힘내라는 격려의 따뜻한 눈인사와 함께 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社 設

이낙연 대표 여야협치 발언 환영한다

1일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이들은 여야 협치로 차후 정국 상황을 바꾸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축하드리고,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당부했고 이 대표는 "제가 김 위원장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었다. 늘 지도해주셨듯 이번에는 더 많이 지도해달라"고 화답했다. 이 신임 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균형발전·통합의 정치 등을 새 화두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대표가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균형발전과 여야 협치에 다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만큼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총선 압승 이후 '독단' 또는 '오만'으로 압축되는 여당의 기존 행보에 이 대표가 쇄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여당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상황이 발등의 불임은 틀림없지만, 국가 장래의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균형발전과 여야 협치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집권 여당의 대표인 이 대표는 항상 이를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에서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다짐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야당에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한 것도 현재 국난 상황에선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의 지난 총선 공약 중 여당과 공통된 것이 있으므로 빨리 입법화하길 바란다. 또 이번에 통합당의 정강정책도 저희 정강정책과 공통된 게 있다면 빨리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내 4개 특별위원회 구성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데, 특히 김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비상경제특위일 것"이라며 "빨리 4개 특위를 가동하고 역점을 두신 경제민주화 포함, 상법이나 공정거래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간 여야 원구성 등 과거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지금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 이 대표가 새로이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겪었지만, 정치인의 수사가 화려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 반 만큼이라도 실천이 뒤따랐던 적은 드물었다. 이 대표는 균형발전, 비상경제 등 분야에서 특위 가동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직전엔 전남지사를 지냈다.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유력 대선 주자로 당 대표까지 거머쥔 만큼 이 대표는 균형발전·여야 협치를 통해 그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권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